

자조금소식



양돈자조금 거출 제고 및 의무자조금 정착에 주력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최근 양돈자조금 납입률과 도축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축소가 우려된다고 판단, 지난 7월 24일 제2차 자금조성 담당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건태 위원장을 비롯 자금조성 담당위원들은 지난해 11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양돈자조금 납부 확인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이나 유통 상인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또한 농가 계도 및 홍보용 리플릿과 양돈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제작, 양돈협회 지부 및 지역축협에 배부해 양돈자조금 납부 확인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조금 거출이 저조한 시·도청을 방문해 의무자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는 한편 거출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과 농가, 도축장 등에 대해 감사패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위생처리협회와 협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납한 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유용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부득이 형사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들은 국산 돼지고기 소비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학계와 협력해 자조금 재원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양돈자조금 유용 도축장 형사고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는 도축장이 늘면서 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도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주)대화, 설악축산유통, (주)국일기업, 대청식품 등 4개 도축장에 대해 자조금유용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대원축산과 (유)송호, 다원산업, 논산도축, (유)서림유통 등 5개소의 경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7월20일 고소가 접수된 경기도 화성소재 신호유통을 시작으로 형사고발된 도축장은 모두 10여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장기 체납 도축장 12개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여름휴가 까지 반납한 채 직접 방문을 통해 지난 8월 4일을 기한으로 미납금 납부를 요청한 결과 3개 도축장이 납입을 하거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출하물량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인해 수납 자조금을 장기간 체납, 임의적으로 유용하는 도축장이 속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기록해 왔던 양돈자조금 납입률도 올 1~3월 분이 92~93%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최고 독촉문의 납부기일까지 자조금을 납부하거나 납부의사를 밝힌 도축장 3개소를 제외한 도축장에 대해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및 지역 대의원과 충분히 협의를 했지만 개선여지가 없어 부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성과 ‘진일보’

‘신나는 날 우리돼지 먹는 날’ TV광고 효과 소비자 설문
국산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메시지 전달률 87.3%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7월 여론조사 기관인 (주)메트릭스코포레이션(대표 : 나윤정)에 의뢰 2006년도 TV광고 캠페인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에 거주하는 30세~59세 주부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TV광고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및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이라는 광고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회는 오는 9월경 차기 관리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신나는 날 우리돼지 먹는 날 TV광고 효과 소비자 설문>

◆ 메시지 전달력 ‘우수’

광고의 주요 전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광고 인지자의 87.3%가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5년도 광고 캠페인이 ‘웰빙부위 소비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광고가 국산 돼지고기 홍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실었던 것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것으로 해석된다.

◆ 핵심타깃 광고인지도 91.8%, 전년대비 2.5%p 상승

‘신나는 날 우리돼지 먹는 날’이라는 컨셉으로 축구선수 부인을 모델로 기용한 2006년 1차 캠페인의 경우 TV광고의 핵심타깃인 30대 기혼여성의 광고 인지도가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변정수, 현영, 김세아가 출연한 2005년도 웰빙삼총사 2차 캠페인의 인지도 89.3%보다 2.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한 1주일에 평균 1~2회 광고를 시청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2005년도 34.0%에서 7.1% 포인트나 증가한 41.1%로 나타났으며, 광고에 대한 호감도도

72.2%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증가했다.

◆ 등심, 안심, 뒷다리살 소비증가에 기여

광고 접촉 후 등심, 안심, 뒷다리살에 대한 소비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광고 인지자의 37.0%가 이들 저지방 부위의 소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5년도 응답 결과 33.5%에 비해 3.5%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더 많이 먹게 된 돼지고기 요리로는 돈가스가 27.2%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뒷다리살, 안심, 찌게류, 볶음류 순으로 나타났다.

◆ 2006년 2차 캠페인 효과도 ‘톡톡’

탤런트 이연경이 출연하는 2차 캠페인에 대한 설문도 동시에 진행됐는데, 방송시작 15일 정도 지난 시점이지만 49.6%의 응답자가 광고를 보았다고 응답했으며, 광고 메시지나 광고에 대한 호감도 등에서도 축구선수 부인들이 출연한 1차 캠페인과 유사한 수준의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캠페인에 대한 소비자 호응과 광고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이 자조금 유용에 따른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위 관계자는 “도축장 경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양돈농가가 돼지고기 소비홍보 및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양돈자조금이 도축장의 운영비로 유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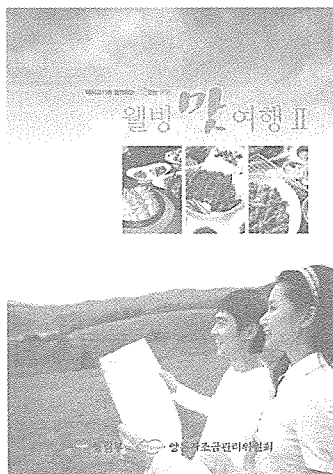
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조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는 도축장에 대해 축산물위생처리협회 및 지역 대의원과 양돈협회 지부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그 이상 장기 체납되는 경우 법적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양돈농가가 유통상인에 출하 시 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유통질서 확립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건태 위원장은 그동안 양돈농가 및 도축장, 유통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 대의원 및 양돈협회 지부의 양돈자조금 조기 정착에 대한 의지로 거출률 95%라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올해 돼지 출하물량 감소 및 도축장 경영악화로 인해 양돈농가로부터 수납된 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는 도축장이 늘면서 임의적으로 유용한 도축장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06 웰빙 맛여행 책자 배부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전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국산 돼지고기 맛집을 소개하는 ‘2006 웰빙 맛 여행’ 책자 1만2천부를 제작하고, 지난 7월 21일부터 전국의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배부했다.

‘2006 웰빙 맛 여행’ 책자는 지난해에 제작한 맛집 책자에 대한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제작한 것으로, 새롭게 발굴한 맛집 22개소를 포함, 31개소의 국산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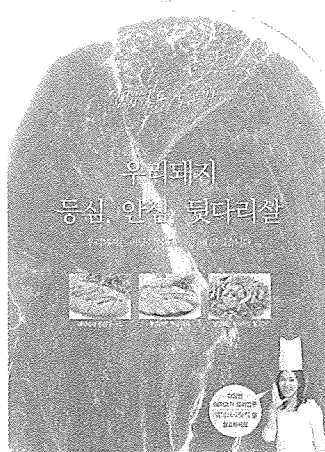
가로 배부했다.

고기 맛집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2006 웰빙 맛 여행’ 돼지고기 맛집 안내책자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 1만3천부를 추가로 제작했으며, 전국 11개소 농협 하나로클럽 및 양돈농협, 롯데마트 등에 추

“삼겹살도 올고 간... 등심, 안심, 뒷다리살”

양돈자조금, 국산 돼지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제작·배부



소속 회원사 3만개소와 농협 목우촌 판매장, 양돈협회 각 지부, 소비홍보 행사장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돼지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3만7천매를 제작했다.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제작한 포스터를 8월중에 전국 축산기업중앙회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너도나도 위생관리 믿고찾는 우리돈육